

▶ 매일 INDEX



4면

글로벌30 사업 본 지정 위한 기반 '단단'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음 7월 16일) 제3337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본격적인 입법 여정 시작

민주 한병도 의원·국힘 정운천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생명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구체적 특례 포함 219개 조문 담아… 연내 통과 결의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盼기름한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산시을)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보여주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풀쳤던 양 의원이 후속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

추진 TF팀을 가동해 시군·전문가의 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심해 특례 655건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229개 조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 의원과 국회 세미나·토론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문을 다듬어 왔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개정안에 각각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루었으며,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양 의원의 발의와 함께, 도는 연내 통과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에는 국조실과 함께 특례 워크숍을 개최하며 부처 설득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부터는 주 2회 이상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 심사를 맡을 행안

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방문해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운천·한병도 양 의원 모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도전의 기회가 절실히하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9월중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를 당장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민원, 학교장이 처리"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교육활동 침해 교원 원스톱 지원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내달부터

급지원단 등이 가동되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원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담 자문 변호인단은 모든 교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된다. 학부모가 학교 층과 상담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담은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 장치가 구축된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있는 전화에는 자동 녹음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부 교원만 쓰고 있는 안심번호도 모든 교원에게 제공된다.

서 거예금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 등이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와 교원치유 중점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으로 소개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을 시급히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9월 1일부터 학교 전화 자동 녹음시스템 구축, 저경력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도 운영된다.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와 민원상담실 운영, 교원 안심번호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구성은 9월 초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과, 전담 자문 변호인단 구성은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또 바꿔?'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전북도 '당황'

한덕수 총리, 재정립 지시… 도 '예타 거친 진행 중 사업, 의도적 늦추지 말아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파행의 불똥이 새만금 예산 삭감을 넘어 용지사용 전반으로 튀고 있다. 30일 뉴시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공항·항만·철도 등 기본시설 등과 관련해 총리가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윤 정부 들어 확정된 사업까지 전제적으로 세부나역까지 따져보라고 당초 농지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던

새만금은 매번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그 사용방안을 놓고 변경되어 왔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전체 사업 내용을 이루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되면서 현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면에 계속> /뉴시스

2023. 09. 11(월) - 17(일), 7일간 전라북도 전주시 화산체육관 및 전주 실내배드민턴장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

YONEX

대회주최

BWF

대회주관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라북도체육회

전주시체육회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

전주시배드민턴협회

2023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